



書誌와 그 事業의 重要性에 대하여

千 惠 鳳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長)

編輯者 이 글은 1969. 9. 11. 韓國外國語大學 圖書館에서 開催된 全國 大學 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된 論文임.

I

우리 나라에 있어서 書誌事業의 重要性을 말하기에 앞서 書誌 그 自體에 關於하여 簡明하게 說明할 必要를 느낍니다. 그것은 아직도 書誌學의 範圍가 一定化되지 못하여 그 概念을 모호하게 여기고 있는 人士가 있기 때문입니다.

書誌學의 用語는 Bibliography(ie)의 翻譯語입니다. 이 Bibliography(ie)는 希臘語인 Bibliographia에서 由來된 것으로 Biblio는 「책」, graphy(ie) 또는 graphia는 「쓰는것」을 뜻합니다. 即 Bibliography(ie)는 본래 「책의 書寫 또는 記錄」을 뜻 하였으나, 그 뒤 學問이 進展됨에 따라 책을 對象으로 記述하는 科學으로 成立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書誌學을 一言以蔽之하여 책을 對象으로 記述하는 科學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精確한 定義와 範圍는 아직도 一定化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書目을 편찬하고 annotation을 붙이는 일을 書誌의 中心課題로 삼고 있습니다. 이 分野는 Schneider가 1923년에 著述한 「書誌學 핸드북」에 의해 開拓되어 現在 美國을 위시한 各國에서 盛行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書目을 만들고 책 內容을 解説하는 일은 書誌學으로서 너무나도 값어치 적은 일이라 過少하게 評價하고 있으며, 그것보다는 形態에 대한 分析記述이 그 精수임을 主張하기도 합니다. Bühler, Greg, Bowers 등은 各各 그 代表的인 形態書誌學者들 임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을 對象으로 그 全般에 걸쳐 科學的으로 研究하는 學問 곧 圖書學(Science of books)을 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圖書學을 뜻하는 경우는 廣義에 있어서의 書誌學으로서, 책의 起原, 發達, 材料, 裝訂, 紙質, 書寫, 印刷, 原文의 傳來와 그 校訂 資料의 蒐集 方法과 그 保存, 圖書館史, 分類, 目錄 등 圖書에 關聯된 全般的인 知識을 網羅하고 있습니다. 이 廣義의 書誌學은 1808年 Dzia-

tzko(1842~1903)가 독일의 Göttingen 大學에서 처음으로 圖書館學 課程을 開設하고 講議했던 內容에 의하여 많은 影響을 받아 온 것으로, 東洋에 있어서는 長澤規矩也 教授를 비롯한 日本의 書誌學者들이 主로 研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內容의 것은 圖書館學이라는 上位 概念의 學問에 포용되어 그 아래에 몇개의 分科學으로 細區分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學問이 그러하지만 研鑽이 거듭될수록 分化된 獨立的인 學的 體系가 形成되듯이, 書誌學 自體도 從來의 雜多한 性格에서 벗어나 그 本然의 機能만을 對象으로 定義를 내려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書誌學의 定義를 내린다면

- 1) 書目的 體系的인 편찬과 그 研究
- 2) 圖書의 物理的인 形態(physical form of books)에 대한 分析 記述
- 3) 原文(text)의 異同과 그 傳來를 分析 研究하여 그 正確과 完全을 期하는 것을 對象으로 해도 그 本然의 機能을 다 카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內容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簡明하게 부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書目的 體系的인 편찬

이 書目的 體系的인 편찬을 Van Hoesen과 Walter의 共著인 1928年 刊行의 書誌學에 있어서는 列舉書誌學(Enumerative bibliography), Esdaile이 著述한 1932年 刊行의 「書誌學敎本」에 있어서는 體系書誌學(Systematic bibliography)이라 각각 일컫고 있으며, 그 뒤 이 두개의 用語가 主로 西歐에서 利用되어 왔습니다. 한편 Shoemaker가 1967년에 發表한 「書誌學(概論)」에 있어서는 이를 主題書誌學(Subject bibliography)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idea가 실려져 있는 책을 그 內容 곧 主題에 따라 體系化시키고 있는데서 붙여진 名稱인 것입니다.

東洋의 傳統的인 在來의 目錄學도 古今 各種의 個個 圖書를 記述하여 體系化시킨 書目인 點에서 결국은 이 體系 또는 列舉書誌學에 該當됩니다. 다만 記述形式이 東洋 固有의 것으로서 西洋의 그것과 差異가 있고 또 그 名稱이 오늘 날의 Cataloging과 혼동되고 있어 탐탁

치 않을 뿐입니다.

列學書誌學은 책을 간단히 列學하여 書目을 作成한다 해서 붙여진 名稱이나,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平凡한 表現이요 그것이 利用者에게 바람직한 information을 提供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어떤 適切한 體系에 의해 組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體系的이라함은 記述된 資料가 어떤 形式別 主題別 字母順 및 其他 方法에 의하여 合理的으로 組織됨을 말합니다. 그 중 形式別이란 것은 時代別 地理別 言語 또는 文字別로 資料를 組織함을 말하고, 主題別이라 함은 순전히 資料 內容의 特徵에 의하여 同一한 것, 關聯된 것을 모아 組織함을 말합니다. 字母順에는 著者 또는 書名을 가나다 또는 ABC順으로 標出하고 그 아래서 記述된 著作을 벌릴 것이며, 그 중에는 個人著述書目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其他 方法에 의한 것은 主題索引 (Subject index) 가이드(guides)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書目的 편찬은 書目的 列學보다 더는 體系的인 組織이라고 表現하는 것이 適合하므로 그 名稱 自體도 列學書誌學보다는 體系書誌學이 適切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要컨대, 그 名稱이 어떠한 間에 이 分野의 書誌學은 어떤 特別한 目的과 共通의 特徵을 지니고 있는 資料를 體系的으로 組織하여 人間 知識의 參考用 資料로 提供함이 그 主된 目的이기 때문에 모든 學問의 入門의 資料로서의 重要な 機能을 지니고 있습니다.

2. 圖書의 形態에 대한 分析 記述

圖書의 形態에 대한 分析 記述은 책의 外形의 事象에 대한 記述이 爲主입니다. 그런 까닭에 Willoughby는 1957년에 刊行한 「書誌學」에서 形態書誌學(material bibliography)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dea로서의 책을 記述하고 研究하는 「知的書誌學」(intellectual bibliography)에 相對하여 붙인 「物質的 또는 形體的 書誌學」인 것입니다. 다만 책의 物質 또는 形體보다는 形態가 適切한 用語로 생각되기에 이 用語를 擇하였읍니다.

한편 大英百科事典(Encyclopedia Britannica) 1963年版에서는 이를 「記述書誌學(Descriptive bibliography)」이라 지칭하고 있으나 이것은 適合치 않은 名稱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본시 書誌學이 책에 대하여 記述하는 科學이므로 「記述」 그 自體의 名稱은 唯獨 形態의 記述에만 쓰여지는 固有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言及한 體系書誌學과 다음에서 말할 原文書誌學에서도 아울러 適用되기 때문입니다.

이 形態書誌學은 寫本과 刊本의 物理的 變遷 過程을 알기 위한 手段으로 實物을 土臺로 分析調査하여 記述

하는 學問입니다. 即 책의 定義, 起原, 名稱 및 發達, 책 裝訂의 變遷, 印刷史, 活字, 版式, 版種, 字體, 紙質 등 雕版과 活字本을 分析 調査하고 研究하여 記述함을 爲主로 합니다. 따라서 이 分野는 實證的이고 考證的인 重要視하며 책 內容의 性格, 目的 또는 그 理解의 與否에 關係 없이 책의 物理的인 識別(identification)을 위한 研究에 限定되는 것이 通례입니다. 또한 이 書誌學은 어떤 限定된 目的을 위하여 위의 事項中에서 어느 하나를 個別的으로 研究할 수도 있습니다.

中國 在來의 板本學도 책 內容의 理解에 關係 없이 寫本과 刊本의 物理的인 識別 即 鑑定을 위하여 形態的인 面을 實證的인 方法으로 分析 調査하여 記述하는 書誌學이므로 이 形態書誌學에 該當됩니다.

이 形態書誌學은 現代書에 寄與하는 바는 別로 크지 않지만 古典의 整理와 鑑定 등에는 매우 必要한 分野가 됩니다. 特히 東洋의 古典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東洋의 古典은 西洋의 그것과는 달리 刊行年 未詳의 것이 매우 많고 또 設使 刊行年이 있다하더라도 初刊年 또는 比較的 初期의 刊行年만 있고 그 後 無數히 重刊年 年代는 그 表示가 없는 것이 許多합니다. 이러한 경우 活字, 版式, 版種, 字體, 紙質 등의 物理的 또는 形態的인 特徵에 따라 刊行年을 推定해서 同一한 著作의 여러 異本에 대하여 그 刊行順序를 鑑別해 넘으로써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을 뚜렷하게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分野의 書誌學은 古書의 目錄 또는 書目 作成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出版年을 알아내는데 基礎的인 知識을 주며 또한 古典의 蒐集에 있어서 그 資料의 稀少價値를 評價해서 選擇하는데도 基礎的인 知識을 주는 重要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3. 原文의 異同과 그 傳來의 分析 研究

原文의 異同과 그 傳來를 分析 研究하는 書誌學을 흔히 原文書誌學(Textual bibliography)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 原文書誌學은 同一한 著作의 여러 版種을 널리 蒐集하여 本文의 異同을 對照 比較하고 分析的인 批評을 加하여 그 文의 正確과 完全을 期하는 學問입니다. 따라서 東洋 在來의 校勘學 또는 校讎學과 그 性格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中 校讎學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 廣義로 解釋하여 原文字句의 校訂에 그치지 않고 書目에 관한 事項 곧 在來의 目錄學에 가까운 研究까지 아울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原則的으로는 古典 原文의 異同을 調査하여 그 文의 正確과 完全을 期하는 일이 中心 課題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言及한 形態書誌學과 原文書誌學은 다 같이 책을 分析 또는 批評하는 過程을 거쳐 記述하는 까닭

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 兩者를 一括하여 分析書誌學 (Analytical bibliography) 또는 批評書誌學(Critical bibliography)이라 칭하고 그 아래서 細分하기도 합니다.

II

위에서 書誌學에 대하여 그 理解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言及하였으나, 그 中 오늘 날 우리에게 보다 더 時急하고 重要한 分野는 體系書誌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날에 있어서는 形態書誌學보다도 이 體系書誌學이 第一次의인 位置를 차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全世界를 通하여 每日같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는 實로 龐大한 量의 책과 刊行物을 體系있게 處理해서 人間 知識의 基礎資料로 提供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課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龐大한 量의 책과 刊行物 中 特히 學術誌만을 들어 言及하더라도 年間 5萬餘種이 6千餘萬페이지라는 엄청난 量으로 刊行되고 있고, 우리 나라만도 年間 約 230餘種에 1萬2百餘種의 論文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龐大한 文獻 속에서 學者나 技術者가 自己의 專門分野의 研究를 위하여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다룬 資料를 빠짐없이 適期에 參考하고 利用토록 奉仕하는 것이 그 어찌 火急한 事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참으로 개탄을 禁할 수 없습니다. 書誌의 統整作業도 거의 荒蕪地의 狀態이거나 韓國學研究를 위한 價値 있는 資料도 그간 煙沒되고 혹은 海外로 흩어졌으며 남아있는 것마저도 거의 原始林의인 放任狀態에 있다고 해서 過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後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各 分野의 文獻資料를 폭넓게 그리고 신속히 評價 蒐集해서 바람직한 體系로 組織하고 그 情報를 고루 傳達해 주는 活動을 지체없이 推進시켜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發展途上에 있는 나라로서 政治 經濟 文化 社會등 모든 面에 있어서 近代化를 위하여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特히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 不安함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從來의 舊態 依然한 思考와 行動方式을 止揚하고 참신한 idea를 짜냄과 아울러 슬기롭고 새로운 技術을 창안하고 體得하여 良質廉價의 國內生産品으로 文化國民의 水準에서 윤택한 經濟生活를 영위코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促進시켜 주는 唯一의 原動力은 創意的인 idea입니다. 이 idea의 開發로서 文化가 暢達되고 經濟가 復興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든 分野에서 밀려들어 오는 이 idea는 바로 文獻에서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訓練된 專門職 또는 學者가 周到綿密하게 調査 評價해서 直接 또는 機械의 自動化로 體系있게 統整하고 必要할 때에 必要한 사람에게 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그 情報를 提供해 주는 奉仕活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一次의인 作業이 바로 專門職이 中心이 되어 이루어 지는 體系書誌의 편찬과 그 奉仕 事業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 間 國會圖書館參考書誌課에서는 書誌事業面에 있어서 開拓의인 일을 해 왔고 지금도 繼續中에 있습니다. 그 中 重要한 것을 들어 보면 본래 韓國圖書館協會가 着手했던 「學術雜誌索引」 1960~1962年度를 繼承하여 「國內刊行物記事索引」의 題名으로 1958년부터 1969年 3月까지 刊行한 것을 위시하여 「韓國新聞·雜誌總目錄 1883~1945」, 「韓末韓國雜誌目次總錄」, 「韓國에서 出版된 英文雜誌索引, 1890~1940」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學術雜誌綜合目錄, 外國篇」, 「歐美雜誌便覽」, 「政府刊行物目錄」 「朝鮮總督府月報 및 朝鮮彙報目次索引」,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 「西洋本韓國文獻目錄」, 「韓國動亂에 關한 文獻目錄」(A Selected bibliography of Western materials on Korean war, 1950~1953), 「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錄(外國篇)」, 「韓國古書綜合目錄」, 「一山文庫漢籍目錄」 및 各種의 所藏目錄등이 出刊되었습니다. 앞으로도 「書院藏書目錄」, 「分類順古書目錄」, 「古書年表」, 「文集內容索引」, 「叢書內容索引」, 「傳記資料索引」, 「民族學資料索引」 등이 계속 刊行될 豫定이라고 합니다. 그 外의 機關에서는 片片的으로 書日이 편찬되어 刊行되었을 뿐입니다. 既往에 調査한 것을 근거로 대충 그 例를 들어 보면 韓國圖書館協會에서 「選定圖書目錄」,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古書分類目錄首卷」, 「韓國書目」, 「藏書分類目錄」,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에서 「奎章閣圖書目錄」 「일사·가람文庫 著者書名目錄」, 同校文理科大學東亞文化研究所에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學術院에서 「學術總覽」, 韓國研究圖書館에서 「文獻選錄, 1959~1960」,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同校民族文化研究所에서 「韓國圖書解題編輯資料目錄」, 延世大學校商經大學產業經營研究所에서 「產業經濟文獻目錄, 1945~1960」, 成均館大學校圖書館에서 「漢籍藏書目錄」, 東國大學校圖書館에서 「古書目錄集成」, 「高麗大藏經總目錄」, 中央大學校教育學科에서 「韓國教育目錄」, 中央公務院教育院에서 「個人論文題目集」, 韓國民族美術研究所에서 「潤松文庫漢籍目錄」,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에서 「과학기술문헌 목록집」, 仁荷工大圖書館에서 「學術雜誌目錄 理·工系」,

國學研究論著總覽刊行會에서 「國學研究論著總覽」, 大韓出版年鑑社에서 「出版年鑑, 1957」, 大韓出版文化協會에서 「韓國出版年鑑, 1961~1964」등을 비롯하여 東國大學校 高麗大學校 서울大學校 中央 및 行政大學院 春川農科大學 空軍大學 釜山市立의 各圖書館에서 各所藏目錄을 편찬 간행 하였습니다.

個人 또는 書籍商에 의한 것으로서는 姜尙雲 編의 「韓國關係外國論文記事總目錄」, 崔笏子 編의 「韓國雜誌目錄, 1936~1945」, 李炳穆 編의 「韓國의 大學定期刊行物」, 高厚錫 編의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李截喆 等編의 「한국참고도서해제」, 李聖儀 金鈞瑟 共編의 「羅麗藝文志」, 閔泳珪 編의 「新羅章疏錄長編」, 金然 編의 「海東文獻總錄」, 李仁榮 編의 「清芬室書目」, 金根洙 編의 「古書樓錄」등이 刊行되었고, 徐有樂 編의 「鏤板考」, Mo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een-nie」, 「古鮮冊譜」 「朝鮮圖書解題」등이 影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現代의 學術과 技術을 綜覽하고 참다운 韓國學과 韓國의 眞像을 理解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綜合的이고 體系있는 書目的 편찬이 繼續的인 事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圖書館人과 學界의 權威있는 學者들의 協同體로서의 韓國書誌事業會를 1968年末에 設置하고 今年初에 人文科學 自然科學 社會科學 및 古文獻의 各 委員會를 組織하였습니다. 이 事業會의 細部的인 內容은 事業會規程에 條文化되어 있거니와 그 目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各種 資料를 調査 評價하여 體系의으로 組織하고 이를 綜合 또는 自動化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學術 및 技術의 研究와 發展에 寄與함에 있습니다. 그 事業의 對象에는

1.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 資料의 調査 및 評價
2.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 資料의 主題別 및 綜合書

(20面에서 繼續)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問題나 研究에 관한 文獻調査를 의뢰해 오면 현재 이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圖書館에 있는 資料까지도 모두 調査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에게나 수시로 資料를 貸出해 주기도 하는 것이 이 圖書館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Microfilm 으로 된 資料를 이용하다가 Copy 가 필요하게 되면 즉석에서 自動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계를 준비중에 있으며. 기타 필요한 資料를 모두 복사할 수 있도록 複寫機도 갖추어 놓고 있다.

이밖에 資料를 Microfilm 化하는데 필요한 Micro-filmer, Microfilm 을 읽을 수 있는 Microfilm Reader, Microfilm 을 利用하다가 自動複寫할 수 있는 Micro-

目的 편찬

3. 韓國에서 刊行된 學術雜誌의 索引 편찬
4. 韓國이 保有하고 있는 外國刊行 學術資料의 主題別 및 綜合書目的 편찬
5. 韓國研究에 必要한 書目 편찬
6. 資料複製의 발전
7. 書誌 自動化的 普及 및 綜合
8. 國內外 關係機關과의 書誌의 情報資料 및 技術 交換
9. 書誌事業을 위한 要員의 訓練
10.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등, 말하자면 書誌 全般에 관한 事項이 網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書誌事業에 대한 金科玉條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 實踐이 問題입니다. 豫算의 뒷 받침이 빈약하여 今年度는 겨우 古文獻委員會가 「韓末古文書解題目錄」 편찬에 着手하였을 뿐, 餘他의 委員會는 束手傍觀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이 書誌事業을 強力하게 促進시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豫算의 뒷 받침이 절대 必要합니다. 即 國家나 어떤 團體의 繼續的인 補助가 있어야 하며 特히 國家의 支援이 자못 아쉬운 立場에 있습니다. 政府는 此際에 이 書誌事業이 近代化를 위한 國家成長計劃에 있어서 보다 더 빠른 지름 길을 걸을 수 있는 唯一의 基礎的인 作業이 된다는 點을 再認識하고 積極 支援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會員과 더불어 懇切히 要望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自己 圖書館이 必要로 하는 分野의 書目を 편찬하여 利用者의 研究와 調査에 最大限의 便宜와 奉仕를 提供하는데 率先하고 또한 서로 協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날 圖書館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業務가 되는 것입니다.

film Reader-printer, 모든 資料의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 수 있는 Copy-Machine 등의 AV 器材도 이미 發注되어 Micro File Cabinet 등 일부는 이미 入荷되었으며 今年末까지는 完全 入荷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방대한 科學關係 資料를 所藏하고 최신 기계 설비를 갖추으로써 만족스런 奉仕를 할 圖書館은 막 준공을 본 KIST의 本館 4층에 300명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여 시원스럽고 넓직한 스페이스이다.

이 圖書館의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은 參考閱覽室 雜誌室, 書庫, 閱覽室과 Panel 및 소규모 세미나를 위한 小會議室, AV 資料 및 機器室, 資料整理室, 기타 사무실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다. (李相吉 記)